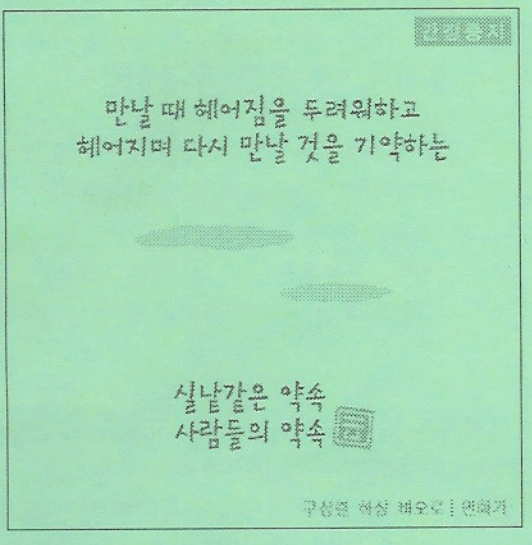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9주일 전교주일(묵주기도 성월)
제28권 47호(가해) 2008·10·19

[묵상]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법칙이 있다.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천년만년 살 수 없기에 헤어짐은 당연한 일이다.
만남이 좋으면 헤어짐이 아쉽고 두렵기도 한다.
이럴 땐 헤어졌더라도 다시 만남은 행운이다.
그래서 재회를 기약하고 약속한다.
허나 좋지 않으면 만남의 인연이 되도록 빨리
끊어져 헤어지길 바랄 것이다.
이럴 땐 다시 만남은 불운이 될 수도 있다.
하느님도 예수님이라는 사람 안에서
회자정리의 법칙을 따라야 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 끝 날까지 계시겠다고 했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제자들이 거행하는 성사 안에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만큼
그만큼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이다.(大)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오전 7:30
	주일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10:00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M. 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오후 6: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5:00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오전 중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오후 1:00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 지향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엄은섭 도로테오, 박요셉, 이 마리아, 닥터 리, 김세실리아, 정완현 안드레아, 박명렬 요셉
	(생)이덕철 루카와 순자 비비안나 가정, 송기철 루카, 이종한 루카, 김한진 루카, 방정복 루카, 안순영 루카, 신홍식 루카 신부
주 일 낮 미사	(연)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현호 요한, 김금봉, 고준희 제임스, 이은완 야고보, 이영자 마리아, 김판봉 안나, 김원태 바오로, 김진수 미카엘, 김형진, 박순용 요안나, 본당 은인들의 영혼
	(생)본당 은인들, 김광남 프란치스코 신부, 김윤근 베드로 신부, 조욱종 사도요한 신부, 이종민 요셉, 이영희 카나리나, 노영자 마리아, 이경용 야고보와 윤조 글라라 가정, 송기철 루카, 정열모 미카엘과 미영 미카엘라 가정, 이석제 베드로와 김화경 스텔라 가정, 김문수 미카엘과 용희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 박상대 마르코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 답 송	⊙만백성이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정의로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세상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아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심이로다.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0,9-18
복 음 환호성	⊙알렐루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에게 가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이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1	215
봉헌	364	269,214
성체	376	287,295
파견	394	325

간추린 가톨릭 교리

19.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 혼인성사의 의미와 효과

세례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은 성사가 된다. 따라서 이들의 혼인 생활은 성사 생활이다. 그러나 두 신자의 혼인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가 되려면, 성직자와 2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혼인 합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혼인성사 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혼인성사를 이루기 전과는 달리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사적 은총을 가진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는 혼인으로 결합된 서로가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는 지극히 은혜로운 사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 달리 부부 스스로가 집전자가 되어 성사를 이룬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혼인한 부부가 나중에라도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이전 혼인이 자동적으로 성사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혼인성사는 일회적으로 집전되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성사적 혼인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성사인 것이다.

혼인성사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 주셨다.(창세 1,27-28 참조) 이는 곧 혼인성사의 목적인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출산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인 일부일처제(혼인의 단일성)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부부는 죽음 외에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가르치셨다.(마르 10,2-9)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당신을 희생하셨듯이 부부는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에페 5,25-32)

▶ 혼인의 목적과 특성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부부사랑과 자녀출산으로서, 부부는 서로에게 주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치하고,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단일성은 일부일처제가 아닌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혼인도 배격한다. 그러므로 동성결혼이나, 중혼, 축첩 등은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악이다. 또한 하느님의 축복으로 맺어진 혼인성사의 불가해소성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을 깨뜨리는 이혼을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부의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다. 곧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바치시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자신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증언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갈라질 수 없듯이, 혼인의 서약을 한 부부는 죽음이 아니면 갈라질 수 없으므로, 신랑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혼인의 서약을 완성하여야 한다.

(◆계속 - CBCK 제공)

자신과 남을 구원하는 전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학업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은 캠퍼스 생활이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저는 교내에 있는 경당의 매일미사에 참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캠퍼스 안에서 저를 알아보는 미국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근처, 교내 식당, 교내 셔틀 버스 정거장 등에서, 그들은 저를 보면 "Hi, Father!(안녕하세요, 신부님!)" 하며 친근하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들 중에는 매일미사에 자주 참례하여 이름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매일미사에 참례하는 미국 가톨릭 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 학생들은 가톨릭 사제인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정의 곳곳에서 제가 잘 모르는 한국 유학생들이 길거리를 마주 지나치면서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또 식당이나 도서관 매점에서 만나게 되면 저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신부님,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합니다. 교정의 도처에서 저를 알아보는 학생들이 있기에, 교정의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교정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은 대부분 '신부님'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미국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이 '신부님'하고 저를 부르면, 저의 무조건적인 행동지침이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가톨릭 사제임을 표현하는 '신부님'이라는 호칭이 저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정에서 학생이면서도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던 캠퍼스 생활은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상의 삶에서 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가톨릭을 알리는 자연스런 전교였습니다.

전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서 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전교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긍심이 있을 때만이 전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자신에게서 흘러넘치기에,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권하는 전교는 무엇보다 자기 신앙의 확신이며 표현입니다. 전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에 입문하거나 안하거나를 떠나서, 전교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전교를 통해 믿지 않는 이를 입교하도록 하면,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전교는 믿지 않는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로 초대하는 행위이기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신앙 안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 앞에서 떳떳이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한 까닭입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이고,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전교는 신앙인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전교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김영춘 베드로 신부<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중철 아브라함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배재일 미카엘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헌 시몬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오늘 주일(10월19일)은 백삼위 성당 성전봉헌 6주년 기념일 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숙원사업이던 성전 및 회관 공사가 완료된 지난 2002년 10월19일, LA 대교구 로저 마호니 추기경님 주례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교하자"는 신앙지침을 따라 오늘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봉헌 기념일을 맞아 국/내외 은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낮미사/친교 후 선교영화 'The Mission'을 성전에서 상영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 작품은 18세기 중엽 남미 오지를 무대로 예수회 신부님들의 선교활동을 그린 감동의 명화입니다. 롤랑 조페 감독, 로버트 드 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 125분.

◈ **수요 예비자 교리반(2009년 부활반) 환영식**

내년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를 모집, 환영식을 갖습니다.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시다.

- 환 영 식 : 오늘 주일(19일) 11시 미사 중
- 교리시작 : 10월22일(수) 오후 8시10분, 2층 교리실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바오로 서간 개강했습니다.**

- 수요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회의실
- 금요반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 강당

◈ **장례절차에 관한 세미나**

- 일 시 : 오늘 주일(19일) 오후 1시 강당
- 내 용 : 장례 준비 및 절차, 묘지와 관련된 보험 안내 등

◈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 10월 25일(토) 오후 6시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대부/대모님, 세례명을 정해서 사무실에 신청해주십시오. 대부모님은 세례식에 필히 참석해주세요.

◈ **요셉회/안나회 가을 온천관광**

- 때,곳 : 10월28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오전 8시까지 성당 주차장에 모여 관광버스로 출발합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자녀들의 사진부착 동의서 제출 바랍니다.**

- 학생들의 사진을 교실에 부착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소정 양식에 서명한 후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780-0369

◈ **한국학교에서 한영사전 기증 받습니다.**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영사전이 있으면 교재로 필요하오니 보내주십시오. 이헬레나 교장 ☎(310)347-8765

◈ **한국학교 교사연수(유초급 과정)**

- 일 정 : 10월14일~11월11일, 매주 화/금 8주간 16시간
- 내 용 : 유치원/초등학교 교수학습
- 장 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신청비 : $20
- 8주 이수 후 수료증 배부
- 회비 : 교우 $15, 외부인 $25
- 신청 : 권영옥 루치아 총무 ☎(310)720-2876

◈ **디지틀 카메라 사진 앙코르 특강**

- 일시 : 11월16일(주일) 오후 1시, 유아실
- 대상 : 디지틀 카메라에 흥미가 있으나 자세한 작동법을 모르는 초보자는 물론, 사진을 좀 더 잘 찍기를 원하는 교우들. ☎(949)502-1213 이안드레아 홍보부장

◈ **TV 디지틀 수신 Converter Box 무료 구입 Coupon 신청**

- 기존의 아날로그 TV 수신 방식이 내년 2월부터 디지틀 수신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컨버터 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신청서가 사무실에 비치 중이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과(310) 283-5879

◈ **첫 영성체 사진 찾아가세요.**

- 지난 6월15일 첫영성체한 학생들 중 아직 사진을 찾아가지 않은 학생들은 사무실로 오세요.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19일(주일) : 토런스 북1/2반(소고기국밥 $3)
- 10월26일(주일) : 토런스 남1반 (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오상 권태만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김옥보
김완태 김 욱 김원모 김원호 김재연 김정희
김종환 김준호 김형순 민봉식 박인식 서성용
안태갑 엄혜은 오 진 이영희 이일길 이재용
이태옥 장수창 장영진 장정진 정규숙 정열모
정지숙 조소영 주대종 차인수 천광락 최기남
최의수 최재은 최태훈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합계 : $4,270

미사헌금 : $2,804

성전헌금

권오상 권태만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김옥보
김 욱 김원모 김원호 김재연 김정희 김종환
김준호 김형순 민봉식 박인식 서성용 안태갑
엄혜은 이영희 이재용 이태옥 장수창 장영진
장정진 정규숙 정열모 조소영 주대종 차인수
천광락 최기남 최의수 최재은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합계 : $3,170

감사헌금 : 김낙기, 신순희 **어린이 놀이터 기금 :** 김정엽

공지사항

◈ **고 이상현 베드로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 뷰잉**

안나회 이영희 카타리나 회장의 부군이신 이상현 베드로 님(68세)이 10월18일(토) 숙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 연도 & 뷰잉 : 10월21일(화) 오후 7시30분 성전
- 장례미사 : 22일(수) 장지 글렌데일 포레스트론

◈ **빈첸시오 회에서 신발(운동화 등)을 모읍니다.**

- 보내는 곳 : 볼리비아에서 선교와 자선사업을 하는 까리따스 수녀원
- 보내는 물품 : 작아서 사용하지 않는 신발(운동화 등)을 깨끗이 손질해 가져다주세요.
- 문의 : 빈첸시오 ☎(310)283-5879
- 그동안 수거한 성물은 잘 닦아 포장하여 지난주에 현지로 보냈습니다. 협조해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남가주 소식

◈ **남가주 꾸르실료 25주년 기념 울뜨레아**

- 일시 : 10월25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 주제 : 변화된 신앙인으로 함께 나누는 삶
- 미사집전/강의 : 장봉훈 주교(청주교구장)
- 장소 : LA트레이드 테크니컬 칼리지(워싱턴+그랜드)
- 식사와 선물이 제공되오니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발현 성지 순례**

- 출발 : 매월 셋째주 목~일(3박4일)
- 경비 : $950(LA 출발 기준. 항공료에 따라 변동가능)
- 후원 : 가톨릭신문사, 주관 : 투어월드 ☎(213)385-0043

◈ **제 27회 남가주 한인천주교회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 일 시 : 11월27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30분
- 장소 : Eldorado East Regional Park (Garden Grove Area)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주제 :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 미사 후 행사 : 가장행렬, 줄다리기 등 각 본당 참여
- 준비위원회 : 성엘리사벳 한인천주교회 ☎(949)725-9348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10월 정기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수산나 (949)679-4321* *10/17(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례 스콜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42* *10/10(금) 오후8시*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데레사 618-8499* *10/1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현정 헬레나 543-4593* *10/7(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최경숙 수산나 320-0855* *10/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김파셀시아 892-9651* *10/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젬마 214-2290	*강은진 젬마 214-2290* *10/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10/10(금) 오후 7시, 성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최기남 야고보 569-3940* *10/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755-489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중두 요한 544-1267* *10/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0/11(토) 오후 6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0/10(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이수산나 265-0495* *10/16(목) 오전 10시, 성당*

⊙ "바오로 서간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

▶바오로와 예수님! 이 두 분은 동시대의 인물임에도 서도 만난 일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일도 전혀 없다. 나이로 가늠해보면(사도 7,58; 필레 1,9) 바오로의 출생연도는 기원후 5~10년으로 볼 수 있고, 바오로는 예수님보다 몇 살 아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유명했던 희랍의 도시 타르수스 태생(사도 21,39)인 바오로는 유다인 정통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사도 16,37-38)했다.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하에서(사도 22,3;26,4) 개인 과외수업을 받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히브리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벤야민 지파 출신으로 제1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이름이었다.

당시 유다인 사회 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로서 앞날이 촉망되던 바오로의 생애는 뜻밖의 사건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던 바오로는 땅에 엎어졌다. 그 장면이 희랍어 성경 원문에는 '내동댕이쳤다.'라는 말로 표현돼 있다. 그 때 바오로는 눈이 멀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사도 9,1-9; 26,12-18) 바오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바오로는 자신이 내동댕이쳐지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이 은총의 사건을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1코린 15,8) 이제 바오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갈라 1,16; 필리 3,8)이며, 이것이 다마스쿠스 회심의 근본적인 깨달음일 것이다. 삶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넘겨졌고, 이는 그에게 다시없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역사 안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며, 형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으나, 오직 그분의 죽음만이 구원을 드러내는 능력이며,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음을(1코린 15,2-4) 바오로는 자신의 서간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오로는 개종 사건 이후 다마스쿠스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니아스를 만나 안수를 통하여 눈을 뜬 후 세례를 받고,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했다.(사도 9,10-22) 바오로는 회당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도 간다.(사도 13,46-48) 세 차례의 선교여행을 통해 바오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도의 길을 걷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2코린 5,17) 이렇게 바오로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복음서가 집필되기 이전에 신약성경 최초의 글을 남긴 그리스도교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서간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진로를 결정한 사도적 인물의 위대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사도적 영혼이 담긴 서간에는 바오로가 친히 쓴 테살로니카 1서, 갈라티아서, 코린토 1/2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등 일곱 개가 있고, 그 밖의 여섯 개의 편지인 테살로니카 2서, 콜로새서, 에페소서, 티모테오 1/2서, 티토서는 바오로가 죽은 뒤 그의 제자들이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 쓴 차명서간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바오로가 서간을 쓴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 바오로는 복음적 열정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고 구성원들과 관계를 다지면서 여러 지중해 지역을 여행했다. 바오로는 자신의 선교활동을 한 곳에 머물러 펼치는 활동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항상 이동하여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회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 남겨 놓은 공동체와 접촉을 유지하는 수단이 필요했다. 편지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도직과 사목활동의 연속이자 확장이었다. 바오로는 자신의 공동체나 협력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바로잡고 격려와 칭찬, 조언을 하기 위해 서간을 썼다. 때때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처럼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은 공동체에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본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로마 15,4) 사도 바오로 탄생 2,000년을 보내면서, 우리도 바오로 서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바오로 서간을 중심으로 하는 본당의 "거룩한 독서"(렉시오 디비나)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자.◆

☞ 백삼위 "거룩한 독서" 수요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반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